마음의 발전이 아니라면 극난한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없다

☞ 19면에서 계속

고, 달에 들어가면 달이 되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어떤 사람이 응해 달라면, 돼지가 응해 달래도 돼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시키는 바로 정신계의 어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름해서 부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상하가 없이 모두, 스님들끼리 살 때는 스님이 높고, 상인들끼리 살 때는 상인이 높고, 뱃사공은 뱃사공대로 높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높고, 제가끔들 가난하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그 집안에서는 다 높은 분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못났어도 내 가정에선 내 남편으로서 제일 높죠. 안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선 내 자식으로서 제일 높고, 내 부인으로서 제일 높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래서 부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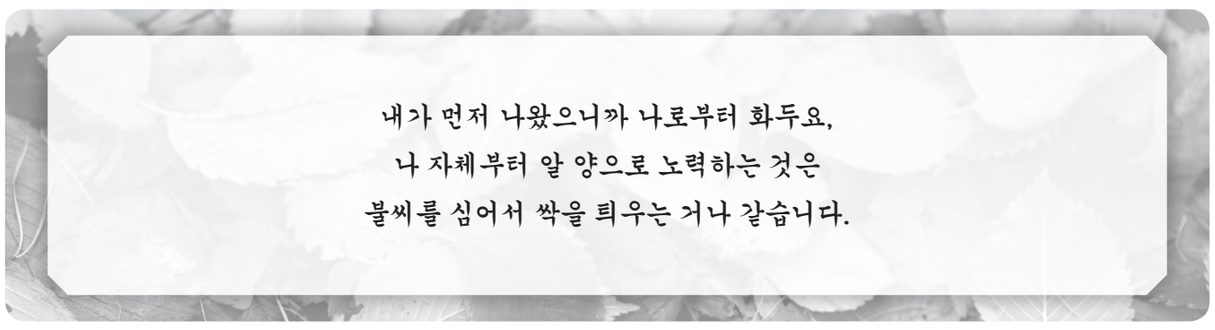
부처라는 것이 '나는 깨쳤다, 내가 제일 높다' 하는 그런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높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뜻에서 부처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하시는 데 될 수 있으면 거기다 맡겨놓고 도로 쥐고 나오지 마시고, 맡겼다가 도로 들고 나오면은, 서류를 도로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몇 사람 말고는 전부 들고 나와요, 도로. 하하하. 그러고는 안 되느니 되느니 하고 야단이에요. 왜 맡겼는데도 안 되느냐 이거죠. 아, 잘 맡겼으면 그럴 리가 있겠나요. 못 맡겼으니깐 그렇죠.

전생의 죄업 때문인지

질문 저는 마음공부를 그래도 몇 년 해오고 있는데 되는 일이 없어 자꾸 맥이 빠집니다. 전생에 죄업이 많아서 그런 건지, 마음공부를 제대로 못해 그런 건지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체 만물만생에 의해서, 내 몸속에 있는 그 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곤충들, 하다못해 무정물까지도, 목신까지도 원한다면 다 응해 주십니다. 응해 주시되 묘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뱀이 공부를 하면서 원하면 한 찰나에 드실 때 뱀으로 응하신다 이겁니다. 뱀으로 응하셔야 뱀이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습을 천태만상으로 나투시면서 응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을 관하면 관세음보살로 나투어 주시고, 지장을 염하면 지장으로 나투어 주시고, 약사를 염하면 약사로 나투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풀포기 하나까지도, 곤충 하나까지도, 안 보이는 세상의 모두를,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또는 죽은 생각이나 산 생각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다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를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자식들에게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때에 그 마음의 보시, 이것은 제일 으뜸 나는 무주상 보시입니다.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물질을 주더라도 조건 없이 주는 보시. 조건이 조금이라도 붙었다 하면은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면, "너는 죄가 얼마만큼 있고 너는 죄가 얼마만큼 있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려고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나는 죄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 또 '나는 이런 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보가 다 녹아야 된다'는 조건, '나는 이러한 병이 걸렸는데 과거로부터 이 업보가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에서 그, 조건 없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줘야만이 마음으로도, 길을 지나가다가도 하다못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무명을 벗겨 줄 수 있고, 그 소의 의식을 바로 나한테로 넣는다면 즉시 그건 죽지도 않아서 벌써 환토를 한 거죠. 천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을 벗고 사람이 돼서, 굴려서 사람으로 환생을 할 때 그 소는 은혜를 생각해서 이 불법에서 떠나지 않게끔 됩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끝 간 데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들이 인연에 따라서 활짝 개이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데로 이끌리기도 하죠. 이 몸뚱이 속에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데로 이끌어 주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데로 이끌어 주는 그런 수십억의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가끔 하죠. 팥죽을 쑤는데 끓어오르는 팥죽 방울을 보고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주걱으로 쳤다는 얘기 잘들 아시죠. 그 주걱으로 죽 방울을 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또는 경을 달달 외워서 강의를 잘하고 이런 게 참선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무지렁이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한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참선이죠.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화두요, 나 자체부터 알 양으로 노력하는 것은 불씨를 심어서 싹을 틔우는 거나 같습니다.

이 모두가 이러한 관계상 인과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것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인 법칙입니다. 모든 만남이, 교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고 또는 '이것이 안 된다, 된다' 하고 법석이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한다면 '아이고!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이거, 이거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서야 나라가 잘될 수 있어?' 이러지 마는 부딪치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하하.

이 모두가 상대적인 원리로서 이렇게 가는데, 부처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禪)이다' 그런다면 이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를 떠나서, 인연에 따라서 딱 붙이면, 즉 전선줄과 전선줄을 한데 붙이면 불이 확 일어나서 불이 들어오는 그 광명을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건데 양면의 이 줄을, 갖다 붙이는 줄을 가지고 이게 틀리다 이게 옳다 하니까, 그래서 "놔라"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놔라. 물질계와 정신계를 그냥 놔라. 놔야만이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굴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는 움쭉도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우주가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하는데, 그게 왜 꿈쩍도 안 하느냐. 은하계의 중심도 태양계의 중심도 이 우주의 중심도 이 인간의 중심도, 모두가 중심은 하나로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태양계로, 태양계에서 지구로, 허허. 모두 별성이나 혹성이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광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뒷면에서 나오죠, 중심 뒷면에서. 우리가 마음의 샘터다 하는 것도 모두가 서로서로 연관성이 있음으로써 이 마음의 샘터에 샘도 나올 수 있고, 그냥 누구나가 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예 쓸모가 없어.' 그러고 그냥 다 내치면 아예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산 송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잘 가는 동안에 의욕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얼굴이 좋아지고, 다복해지고, 짜증도 안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조그만 것 하나로부터 큰 우주의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먹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집어먹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나를 죽여서 내가 될 수 있어야만이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이 몇 마디 안 해 드리는 것을 잘 참작하셔서 행하세요. 스님네들은 신도들을, 법우님들을 만날 때 무조건, 이유가 없어야 하고 신도님들은 신도님들대로 믿음이 진실해야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또는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도리를 알아야 하고,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일체제불의 마음, 이 스님들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먹는 대로 한 찰나에 들고 한 찰나에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질문 요즘은 신심이 나서 매일 새벽예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서 빨리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아침저녁으로 관하는 시간도 갖고 열심히 정진하려고 합니다.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더 마음을 급히 서둘지 마세요. 언제나 사람은 인내력이 있게 노력하면서…, 반드시 참아서가 아닙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참아서 놓는 거하고 인내력이 있어서 꾸준한 거하곤 달라요. 내가 꾸준히 간다고 할 때 다리가 안 아프지, 그냥 '저기 얼른 가야 할 텐데…' 한다면 다리가 끊어지는 것같이 아프죠. 뭐가 그렇게 바삐 갈 일이 있어서 그냥 마음을 바쁘게 두고 그냥 막 육신을 틀겠소?

그래 그전에도 산길을 막, 그 오밤중에도 걸어 보면, 가는 문패를 붙여 놓은 갈 데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유유히 걷지, 그 막 그냥 생각을 하고 빨리 가겠다고 하니까 다리가 아픕디다. 그런데 백 리, 이백 리, 삼백 리를 걸어도 여기서 처음 발떼어 놓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은 꾸준해야 돼요. 꾸준하고, 지켜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간다면 무슨 일인들 못 하겠소.

이 우주의 섭류를 내 한마음의 섭류로 생각하고 모든 걸 운용해 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근본 내가 모든 일체 만법의 기구, 한데 합쳐진 종합기구가 여기에 있어요, 모두. 종합 기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위치만 누르면, 이 방면의 스위치를 끼우면 이 방면이 해결돼 돌아가고, 이 방면에 끼우면 이것이 돌아가고, 저 방면에 끼우면 저것이 돌아가고 아, 그렇게 만법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뭐가 그렇게…. 동그란 보당 속에 다 만법이 들어 있는데. 이 육체 내의 모든 것도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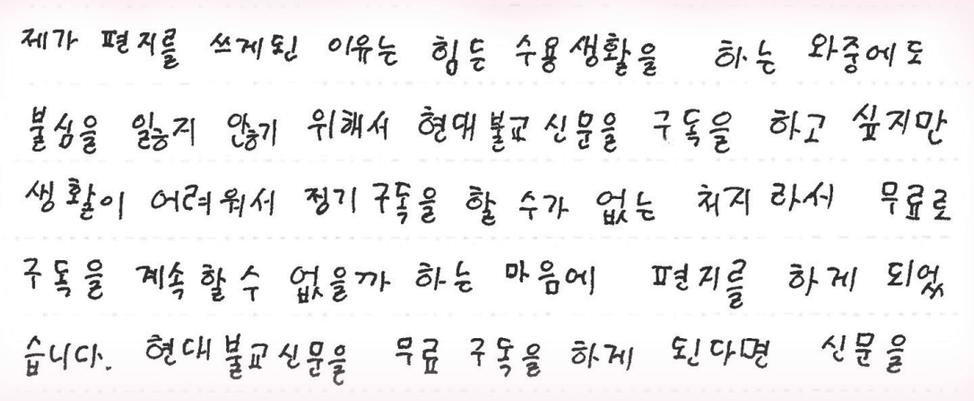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